



장 금 순 상무
바이엘코리아(주)

계육산업의 주위에는 핵무기 위협이 없는가?

가을이 짙어가니 우리의 높은 산들이 단풍으로 인해 마치 불타 오르는 것 같다.

나라 안팎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 사건으로 온통 불 난 집처럼 걱정과 논란으로 어지럽다.

그런데 막상 그 피해 범위 안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들 중 일부의 현실감각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떤 이들은 ‘미국이 북한을 너무 몰아쳐서 북한이 살아 남기 위해 핵을 개발한 것이다’ 어떤 젊은이들은 ‘이제 우리도 핵을 가지게 된 것이다. 북한이 우리와 한 민족이니까’ 어떤 하룻강아지처럼 용감한 정치가들은 이 마당에 일부러 금강산으로 불 같은 단풍을 구경가서 북한 안내원의 말만 듣고 그들의 핵무기가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했으며 걱정 없다.

저들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했고 그 막강한 파괴력을(생존을 위해서든, 자존심을 위해서든 아니면 남침을 위해서든) 사용하려 한다면 1차 대상이 그 누구이겠는가? 이미 전에 그들이 공개적으로 협박했듯이 남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려 할 것이다.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공격은 아직 능력 밖이라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대한 공격 다음이 될 것이다. 무언가 착각을 해도 한참을 하고 있다.

북한 주민은 우리와 동포임이 분명하다.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하루 빨리 실질적 통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우리 남한의 경제나 사회질서가 즉,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그 전제 조건이다. 그야말로 적화통일이 되거나 통일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면 그 의미가 없다.

미국이 북한에게 잘못 했든, 북한의 핵개발 행위가 정당하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판단 기준이 우리에게 피해나 위협이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관한 것이라면 정의와 불의도 뛰어 넘어 첫 번째 우선적으로 택해야 한다. 국가 정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판단에 있어서의 냉철한 현실감이 필요하다.

우리 축산업계, 좁게 보아 닭고기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터이다.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배고픔 보다는 배아픔이 앞서기도 하고,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기보다는 현재의 내 밥그릇을 지키려고 연연해 하느라 준비 시기를 놓치고 만다.

현재 우리 앞에 닥친 도전들이 너무 많다.

외국으로부터 밀려들어 오는 수입육, 미국과의 FTA 체결, 안전육 생산, HACCP, 생산성 경쟁, 각종 고질적 질병 및 새로운 질병과의 싸움, 조류인플루엔자, 수요공급 조절에 실패하는 각종 계육생산에 필요한 부자재, 특히 코 앞에 닥친 가금육 포장유통의무화 법령.

이런 사안들은 계육산업 혼자만이 아닌 다른 분야들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우리끼리 사정을 봐주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미리미리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생산자들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육계 자조금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날 외부에서 들이치는 핵폭탄에 놀라서 허둥대거나, 그 핵폭탄이 우리에게 문제가 안된다고 억지로 외면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계육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여 우리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단백질과 맛있는 식품을 제공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